



Plan

2012

Plan Korea

Annual Report

Vision

플랜의 비전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Mission

플랜의 사명은 전세계 사람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플랜코리아 후원자 여러분들께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독히 추웠던 날씨 때문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얼어붙을까 걱정하며 보낸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어느 해 보다 풍성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간발전보고서를 준비하며 한 해 한 해 성장을 거듭하는 플랜코리아 발전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후원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면을 빌어 한 해 동안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후원자님들의 정성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플랜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첫해를 맞이했던 10월 11일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 플랜과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개발도상국의 여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첫 번째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랜코리아 역시 에버랜드에서 러브 콘서트를 개최하여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그 날을 보냈습니다. 전세계가 하나되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응원하던 따뜻함은 지금도 고스란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여자아이들의 삶이 변했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은 그 변화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힘, 몇 줄 글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벅찬 그것은 모두의 가슴에 평생의 소중함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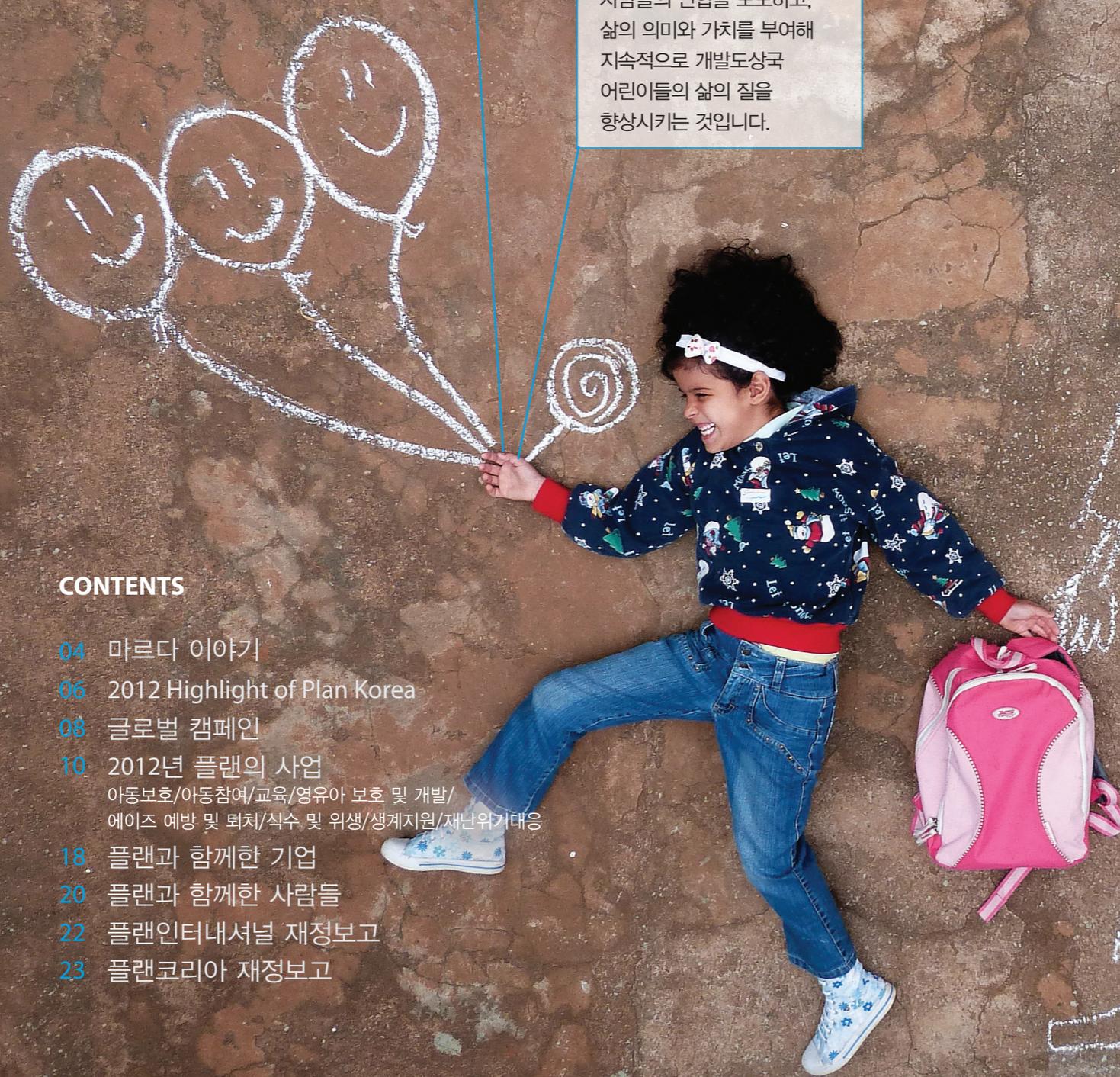
큰 변화와 함께 시작된 새해에도 우리들이 나누는 따뜻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해봅니다. 한 해 동안 나누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변치 않는 처음 마음으로 늘 플랜코리아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플랜코리아 회장 노영찬

플랜코리아 대표 이상주

CONTENTS

- 04 마르다 이야기
- 06 2012 Highlight of Plan Korea
- 08 글로벌 캠페인
- 10 2012년 플랜의 사업
아동보호/아동참여/교육/영유아 보호 및 개발/
에이즈 예방 및 퇴치/식수 및 위생/생계지원/재난위기대응
- 18 플랜과 함께한 기업
- 20 플랜과 함께한 사람들
- 22 플랜인터내셔널 재정보고
- 23 플랜코리아 재정보고





마르다는 우간다에 사는 13세 소녀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마을이 어린이가 살기에 더 좋은 마을로 변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현실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르다는 플랜이 지원하는 폭력방지동아리의 일원이자, 학교의 아동 배심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가 활동하고 있는 폭력방지동아리는 가정 폭력의 근절을 위해 학부모들을 학교에 초청해 열린 토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폭력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설명해줍니다.

“어린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몰랐죠. 하지만 플랜과 함께하면서 저의 태도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어린이의 권리를 위해 의회에 탄원서를 넣기도 하고, 라디오 토크쇼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저는 어린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어요. 나중에 아동 권리를 위해 일할 계획도 세웠어요.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목표이기도 해요.”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플랜은 양성 평등을 통한 여자아이들의 권리 확보를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이를 위한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012년 한 해는 플랜의 지난 노력이 빛을 드러내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의 여자아이 5명 중 1명은 빈곤, 폭력, 그리고 차별의 벽에 부딪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대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 내 폭력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잠재력의 큰 낭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과 그들이 속한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여자아이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지역 대표, 정부, 국제단체 및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여자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취약한 여자아이들의 교육문제가 해결되도록 전세계 지도자 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양질의 중등 교육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캠페인은 여자아이의 권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 주된 요인, 조혼과 학교 안팎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폭력을 없애고자 합니다.

플랜이 발표한 보고서 **'Because I am a Girl: State of the World's Girls(Because I am a Girl: 전 세계 여자아이들의 현실'**는 세계적으로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성 평등은 여성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 보고서는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남성과 남자아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평등은 남녀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10월 11일, 첫 번째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 런던아이, 피라미드, 나이아가라 폭포 등의 전 세계 곳곳 유명 명소들은 분홍빛을 밝히며 본격적인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런칭과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레이마 그브위를 비롯한 세계 유명 인사들도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 제정을 위한 플랜의 노력

플랜은 여자아이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10월 11일 세계 여자아이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통해 가장 먼저 이룬 목표 중 하나입니다. 플랜은 세계 여자아이의 날이 제정되도록 많은 기관과 협력해왔고, 마침내 UN과의 협력을 통해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Learn without fear.

'Learn Without Fear' 캠페인과 함께한 지난 3년 간의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의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캠페인은 종료되었지만, 플랜은 모든 지역의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적절한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체벌과 학대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Learn Without Fear'**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earn Without Fear 캠페인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뤘습니다:

- 4억 8천 5백만 명의 아동들이 교내 폭력으로부터 보호
플랜의 **'Learn Without Fear'** 캠페인은 13개 국가에서 법적 보호망을 만드는 데 크게 앞장섰습니다. 이제 에콰도르, 케냐, 남수단의 헌법은 교내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교내 폭력 방지 전문 국제 NGO로 거듭난 플랜
UN회의, 소외 아동 보호 연대(International Bullying Prevention Association) 컨퍼런스를 포함한 각종 아동 폭력과 관련된 회의 등에서는 Learn Without Fear 캠페인 활동에 대한 소개 시간을 만들어, 플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5,100만 명의 아동들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출생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건 혜택이나 교육 같은 필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플랜은 글로벌 캠페인 **'Count Every Child'**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을 출생등록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2012년 3월, 플랜의 노력을 통해 출생등록은 UN 의제 가운데 중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UN인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모든 국가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채택했으며, 플랜은 이를 위한 법안 작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았으며, 법안이 실시되도록 촉구했습니다.

케냐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출생 등록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케냐의 사례를 비롯한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플랜은 휴대전화 제조사, 정부 대표단, 주요 개발기관들과 협력하여 **'Identity at Birth'**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Identity at Birth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출생 등록

이 프로그램은 휴대전화를 사용해 출생신고를 하면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구축한 세분화된 네트워크로 즉시 연결해, 국가 출생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아동의 정보가 보내지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출생등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아동의 정보를 저장해 아동이 의료와 교육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12 Highlight

of Plan Korea

Love for Everyone "The Plan"



플랜코리아와 MBC 플러스 미디어가 전하는 희망 리포트 Love for Everyone "The Plan"이 따뜻한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획일화된 나눔과 기부방식

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의 아이들의 해결을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The Plan"은 배우 수애, 손현주, 조안과 사진작가 김종만 등 다양한 사람들과 조흔, 장애아동지원, 출생등록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지구촌 아이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함께해서 더 좋은 The 좋은사람들

후원자와 후원자의 특별한 만남 "The 좋은사람들"이 다양한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자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아나운서 오상진, 배우 전미선이 함께 한 스타와 함께하는 후원자 모임에 이어, 솔로 후원자들이 모여 더욱 짜릿했던 "The 짝"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많은 후원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2012년, 후원자 모임은 단순한 만남의 자리를 넘어 참가비 및 행사 수익금을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75 Celebrating our commitment to children

Happy Birthday Plan, 플랜인터내셔널 75주년

2012년 3월 20일은 플랜인터내셔널이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75,000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과 함께 각 국가에서는 축하 행사를 펼쳤습니다. 7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 아이티와 75,000그루의 나무를 심은 짐바브웨, 플랜의 생일을 기념해 현물로 나눔을 실천한 네팔과 출생등록을 통해 8,0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새 삶을 찾아준 필리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습은 다양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어린이들의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만은 하나로 모아진 하루였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75번째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플랜의 지나온 활동을 돌아보고,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동안 플랜과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더욱 더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Because I am a Girl 전세계 여자아이들의 오랜 바람, 첫 번째 세계 여자아이의 날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을 위한 플랜의 오랜 노력으로 2012년 10월 11일, 첫 번째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았습니다. 플랜코리아는 이 날을 기념해 '지구촌 어린이에게 희망을, Love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첫 번째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기가수의 축하 무대와 함께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배우 수애, 손현주, 전미선, 이수경, 백진희의 이야기를 전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1천여 명의 관중은 함께 손을 들어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2년 한해 동안 플랜코리아에서는 첫 번째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인 거리 캠페인 홍보활동, 국회의원 포토세션 진행, BIAAG패션쇼, Raise Your Hand 사진 업로드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첫 번째 맞이하는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함께 했습니다.

어린이가 더욱 건강해지는 빈곤퇴치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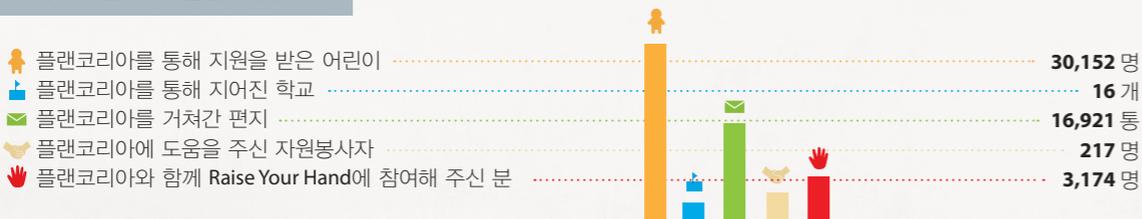
플랜코리아는 올해에도 빈곤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빈곤과 질병퇴치를 위해 사용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직접 보건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에이즈 유행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 사업으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 주민 231만 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또한 세네갈의 의료보건시스템 역량강화 및 아동건강 증진사업 수행으로 193만 명에게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선물했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나눔의 대장정 대외협력사업

플랜코리아의 2012년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으로 더욱 풍성한 나눔 사업을 수행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위한 자동차정비기술고등학교인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건축은 플랜코리아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현대자동차의 기술력,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착공부터 완공은 물론, 완공 이후에는 해피부브 봉사단 방문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에 이르기까지 1년간의 대장정은 가나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희망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건축, 해외 봉사활동, 임직원 아동결연 등의 풍성한 나눔의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2012 플랜코리아



숫자로 보는 2012 플랜인터내셔널





2012 플랜의 사업 아동보호

플랜의 목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학대, 방치,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아동보호는 플랜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Learn Without Fear, Count Every Child, Because I am a Girl 모두 아동보호를 근간으로 하며, 엄격한 아동보호정책을 통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아동 학대, 방치 및 착취 방지와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효과적, 단계적 지원
- 적절한 수준의 법적 보호
-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강력한 지원
-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공공 인식 제고
-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제공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아동보호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2012년 5월, 아동보호를 위한 아프리카 전 지역 시스템 강화와 지역 메커니즘 확립 방안 검토를 위해 35개국에서 300명이 다카르에서 열린 회의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기부자들과 NGO 대표, 26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플랜의 핵심 우선순위를 반영한 '아동보호 시스템의 핵심이자 파트너인 어린이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플랜은 성공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국가의 아동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관간 공식성명을 이끌어 내, 아프리카에 포괄적, 효율적인 전체적인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대한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국 |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

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공공연한 성매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태국 성매매의 25퍼센트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이뤄지고, 휴대폰이나 인터넷 카페의 손쉬운 이용으로 인해 유해 매체의 유포가 일상화 되었고, 아이들은 이런 정보에 손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플랜은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아동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발달의 부작용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5개월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청년 약 8,000명, 지역대표 223명, 교사 212명, 인터넷카페 운영자 33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이버 협박, 사이버 성매매, 도박 등의 유해한 정보통신기술 접촉으로부터 지역사회와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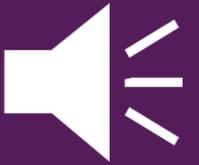
- 교육을 받은 한 참석자

2012 플랜코리아 아동보호 사업

특히 소외 받는 여자아이들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해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태국 소수민족 여아 장학금 지원 | 태국 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 태국 출생등록 지원 | 인도 장애인복지 지원 | 방글라데시 여성직업 훈련 지원

2012 플랜의 사업 아동참여



플랜의 목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플랜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깨닫게 도와주고, 미디어와 신문/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신감과 리더십을 높이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습니다.

- 각 기관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권리의식 모니터링 및 권리의식 향상 캠페인 진행
- 각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강화 지지
- 각 활동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
- 정부 및 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 유도

말라위 | 청소년들, TV 프로그램을 점령하다

플랜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말라위의 '팀베니(Timveni: 들리게 하라)'라는 청소년 TV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매주 방송되는 30분 길이의 이 프로그램에서는 조혼을 강요 받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여자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이어 정부에게 자신들이 당한 일의 책임과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묻습니다. 팀베니 TV는 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인권을 신장하고, 재능을 꽃피우며, 교육을 통해 삶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팀베니 TV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 특히 여자아이들과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능력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팀베니 감독 만안다 나술루

엘살바도르 | 평화의 문화를 전파하는 청소년들

6년 전, 마리오는 거리의 아이였고, 술과 마약을 했습니다. “저는 꿈이 없고, 비전도 없었어요.” 하지만 플랜이 지원하는 찰라테난고 청소년 협회에 가입한 후, 마리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협회 친구들이 저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일깨워 주었어요.”라고 마리오가 말했습니다. 이 청소년 협회는 가정폭력과 학대,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 전파를 목표로 하는 ‘너의 목소리도 중요해(Youth: Your Voice Counts)’라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510명의 7, 8, 9학년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었고, 거리공연과 벽화,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많은 자금을 받았어요! 단순히 어른들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러 여기에 왔어요.”

- 찰라테난고 청소년 협회장 알프레도 아르만도 에르난데스

2012 플랜코리아 아동참여 사업

플랜코리아는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아동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아동이 자신감과 리더십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어린이 연극을 통한 보건 교육 실시 (세네갈 의료보건시스템 역량강화사업) | 태국 BAAAC 캠페인 지원



2012 플랜의 사업 교육

플랜의 목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

플랜은 모든 어린이들, 특히 재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습득 기회제공
- 교사 능력 향상과 공교육 강화,
- 성인지 교육과 교육 자료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정책에 관한 법률제정
-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지역적, 국가적, 전 세계적 차원의 캠페인 진행



니제르

| 조혼 대신 학교로

“사다투우는 다 컸어! 결혼을 왜 안 시키는 거야?” 14세의 사다투우를 두고 조혼이 흔한 니제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사다투우의 경우,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다투우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다투우가 공부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어요. 다른 딸들을 어린 나이에 결혼시킨 걸 정말 후회해요.”

플랜은 니제르에 68개의 학교를 짓고, 1,800명 이상의 교사를 양성합니다. 또한 3,000개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문맹률 감소의 중요성과 올바른 학교경영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플랜의 활동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자아이들에게는 결혼 말고도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조혼률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플랜 니제르 아동권리 담당자 사가도

에티오피아

| 장애아동을 위한 동등한 배움의 기회

6세에 시력을 잃은 이르티반은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집안에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운명은 우리 마을에 있는 다른 장애아들처럼 그냥 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플랜이 지원한 장애아동을 위한 기초교육센터 덕분에 이르티반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점자를 배우며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선생님이 되겠다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플랜은 장애아동을 위한 기초교육센터를 세워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사 교육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 플랜코리아 교육사업

지역내 부족한 초등학교 건립 및 증축을 통해 학생 및 교사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화장실 및 식수 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건축지원 | 베트남 초등학교 건축지원 | 캄보디아 초등학교 건축지원
인도 ICT 센터 & 과학실 조성 | 세네갈 초등학교 교실증축 | 네팔 컴퓨터실 & 도서관 건축

2012 플랜의 사업

영유아 보호 및 개발



플랜의 목표

조기 교육과 영유아 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을 시작

플랜은 신생아와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고, 아동의 생존률을 높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기 아동 질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 어린이 영양공급과 유아교육
- 부모 지원을 통한 양질의 기초 보건 서비스 제공
- 아동과 청소년, 부모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베트남

|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겁게 공부합니다

암기위주 학습이 주된 교육법으로 자리잡은 베트남에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흔하지 않습니다. 플랜은 유치원 이전 유아를 대상으로, 특히 소수부족 출신 아동에 적합한 베트남어와 부족언어 병용 교육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플랜은 한 달에 두 차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놀이학교를 열어 전문교육을 받은 21명의 보육교사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플랜에서 제공한 놀이기구와 포스터, 위생용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놀이활동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플랜의 영유아 교육 전문가가 집집마다 방문해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정 내 보육을 강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의 7개 마을에서는 출생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 17,0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거실배기 우리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영유아 보호센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결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법도 알려 주시죠.”

- 베트남에서 플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의 어머니

과테말라

| 영양실조 예방법을 배우는 어머니들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는 여전히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유아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출생 1,000명 중 32명에 달하는 데, 대부분 만성 영양실조가 원인입니다. 과테말라 80개 마을에서 마을자치운영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제대로 된 아동보육 프로그램이 매우 적거나 전무합니다. 2012년 플랜은 30,993명의 임신부와 수유 중인 산모에게 아동보호와 모유 수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10,093 가구가 플랜이 주최한 영양교육 및 시범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병원과 지역사회 전문가 804명을 대상으로 아동영양 보호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2 플랜코리아 영유아 보호 및 개발 사업

3~5세 아동들에게 유치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율을 높여 초등학교에 대한 준비를 돕습니다.

영유아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학업을 중단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말리 EOCED 센터 건축 | 중국 EOCED 센터 건축 | 라오스 EOCED센터 건축 | 케냐 EOCED센터 건축



2012 플랜의 사업

에이즈 예방 및 퇴치

플랜의 목표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이 에이즈 인식 개선 및 예방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림

플랜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출산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성적 불평등을 깨뜨리기 위해 성교육은 물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에이즈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제공하며, 에이즈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2012년, 플랜은 9,433개 지역사회를 지원했으며, 총 86,809명의 지역 의료전문가 및 조산사를 양성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HIV/AIDS라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질병이 어떻게 감염되는지, 어떻게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HIV/AIDS 인식 교육을 진행했을 때, 주민들은 사명을 통해 의약품을 나누어 주는 줄만 알고 모였지만, 이제는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이고, 함께 에이즈에 대해 토론합니다.”

- 부르키나파소 지역활동가 후오아

캄보디아

|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

캄보디아에서는 젊은이들의 지식부족으로 출산 시, 혹은 평상시에 성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조혼이나 성폭행도 흔하게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임신, 성병, 에이즈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은 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그들을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가도록 합니다.

플랜은 17개의 젊은이들을 위한 건강센터를 건립했습니다. 4개의 분만실도 새로 만들고, 캄보디아의 출생보건협회와 함께 협력해 활동했습니다. 41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계획과 피임법, 에이즈에 관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2012년 1년 동안 687명의 여성을 포함한 850명의 젊은이들이 무료 에이즈 검사와 성병 검사 및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2 플랜코리아의 에이즈 예방 및 퇴치 활동

임산부 교육 및 검진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지역보건지부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에이즈 감염 검사는 물론, 출산과 관련된 진료와 각종 서비스 제공, 감염 예방 키트 제공, 보건소 산책, 지역 단위 교육을 통해 에이즈와 관련한 그룹 논의 등을 실시해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 에이즈 예방 및 모자 수직감염예방사업

2012 플랜의 사업

식수 및 위생



플랜의 목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위생적인 환경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림

플랜은 지역 단체들에게 스스로 위생상태를 개선시키고, 위생에 관한 상식을 갖게 하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정부, 지역사회, 현지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 갈 수 있도록 함께 일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한 전체 위생은 플랜의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프로그램 중 한가지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플랜의 이러한 사업 방법은 현지 파트너들이 지역사회의 위생이 개선되었을 때 스스로 또래 집단이나, 가족 이웃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식수 공급에 대해 관리하고, 화장실 관리, 비누로 손 씻기 등의 위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지원하였습니다. 플랜의 위생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들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지역공동체 사회가 주도해서 위생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마을의 위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또 그런 교육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요. 모든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고, 깨끗한 물이 나와요. 물 때문에 생기던 질병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 케이 파운, 말리 위생협회 대표

케냐

플랜과 함께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 지역통합위생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은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케냐는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해 2013년까지 식수 오염 및 전염병을 유발하는 개방된 화장실을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이 지역통합위생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제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9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플랜이 지역사회 주도 전체 위생개선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012년에는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상당한 사업비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12 플랜코리아의 식수·위생 지원 활동

식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우물 건립 및 WASH-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식수원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위생 관련 증진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우물 건립 | 라오스 여자어린이들을 위한 식수·위생 시설 지원 | 말리 ECCD 센터 내 식수대 설치



2012 플랜의 사업 생계 지원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적 안정 지원과 의미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배양

플랜은 국가 및 지역정부와 함께 경제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합니다.

-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능력을 키우고, 기술 및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함
- 여성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함
- 여성과 같은 소외 계층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 침체기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국가와 지역 정부가 지원하도록 독려



인도네시아 |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직업 훈련

인도네시아 청년들 중 20%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실업 중이거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을 가난을 비롯해 위험한 생활방식, 노동력 착취로 내몰리게 합니다. 플랜은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업 의식과 기술 교육, 구직 기회 제공,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계획본부에서는 플랜의 청년 경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Youth Economic Empowerment, YEE)을 청년취업을 위한 활동 모델로 채택하고, 청년취업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12,000여 명(이 중 90%는 여성)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은행은 플랜의 YEE 프로그램을 국제 기구에 우수사례로 추천했습니다.

“저는 YEE 교육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과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물어봐요.”

- YEE를 통해 의류 공장에 취업한 사리 푸지아스튜티

파라과이 | 돈과 천연 자원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어린이들

플랜은 어린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천연자원 보존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교육문화부를 비롯한 각 지역 NGO와 함께 플랜은 사회,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천연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경제 자립을 돕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29개 학교와 150명의 선생님들을 통해 1,200명의 어린이들은 개인의 권리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통해 어른들까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지역이 플랜과 함께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 파라과이 환경부 장관

2012 플랜코리아 생계지원 사업

코이카 및 다양한 기업과 함께 지역의 환경과 수요에 맞게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플랜코리아를 통해 더욱 많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당당히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 가나 건립 및 지원 |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 인도네시아 착공 | 모잠비크 지역주민대상 농업 훈련과 영양 지원

2012 플랜의 사업 재난 위기 대응



플랜의 목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급 상황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어린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지면, 정서적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플랜은 어린이 중심의 재난 대응을 실시해 그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통해 지역사회가 재난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
- 성인, 교육 종사자, 지역 사회, 대중매체 및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 국가 재난위원회와 교육부처와 함께 학교 안전 지침과 재난 위험 감소 관련 교사 훈련 과정 개발
- 재난 위기 관리 체계와 의사 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부에 영향력 행사

방글라데시 | 빈민가 재난 대응력 강화

도심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지만, 가장 늦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화재, 홍수, 지진이 빈번한 방글라데시의 다카에서 플랜은 재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플랜은 지역 정부 및 자원 봉사자와 함께 120명의 빈민가 거주자, 학생, 교사 및 거리의 아동들이 참여한 모의 지역 재난 대비 훈련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소방서의 도움으로 참여자들은 소방, 응급처치, 수색 및 구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4층에서 방글로 구조되었어요. 그렇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피할 때는 침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 재난대응훈련에 참여한 리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 재난 위기 대응 지역 확대

플랜은 플랜사업장 이외의 지역 위급 상황에도 유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지난 2012년 사헬 식량난과 가뭄 역시 플랜이 유동성을 발휘해 재난위기대응 활동을 펼친 사례입니다.

사헬 지역 식량난 해소를 위해 플랜은 식량지원, 아동보호 및 교육, 식수 및 위생, 아동 건강에 초점을 맞춰 31명의 재난대응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3개 난민 캠프 운영을 통해 16,620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난민 캠프 내 16개 임시학교와 5개의 유치원 운영을 통해 약 1,000명의 어린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뭄이 극심했던 북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약 120만 명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고, 식량보급과 보충식 지급, 식수 및 위생 지원을 위해 2,320만 유로를 제공했습니다.

2012 플랜코리아 재난 위기 대응 사업

긴급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모금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모금된 긴급구호 기금은 해당지역의 긴급구호 기금 및 물품지원, 아동들을 위한 교육기자재 지원 등 현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었습니다.

태국 홍수피해 구호물품지원 지원 | 사헬 식량난 지원을 위한 모금 진행

플랜코리아와 함께한 기업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2012년 더욱 많은 기업이 플랜코리아와 함께했습니다. 2012년, 더욱 풍성한 나눔을 실천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한국 중부발전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그로보강 지역에서 '제 1 KOMIPO School'을 건립했다. 이번 준공으로 200명의 학생들과 8,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중부발전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차 학교 건립도 약속했다. 유치원 2개와 13개의 교실에 도서실, 5개의 화장실과 우물 및 송수관을 포함한 식수시설까지 완비된 2차 학교가 완공되면 340명의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주민도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R

2007년부터 플랜코리아와 개발도상국 학교건립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EXR은 2012년에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초등학교를 선물했다. 베트남 건립된 EXR 프로그레시브 4호 스쿨은 5개의 교실과 화장실, 도서실뿐만 아니라 우물까지 갖추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캄퐁창 지역에 건립한 5호 스쿨에는 학교 건립뿐 아니라 지역아동 100명 결연 후원을 약속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가나 지방도시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를 건립했다. 1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는 총 3층 건물에 자동차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는 메인 실습실, 부품 실습실을 비롯해 컴퓨터 랩과 도서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총 300명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의 건립을 통해 가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정기세일 기간 동안 기부상품을 사은품에 포함시킨 'The 쉬운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은품 중 기부상품을 선택하고 발급되는 기부쿠폰에 안내된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 직접 원하는 후원사업을 선택해 고객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쉽고 친숙한 기부 방식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아시아 지역의 플랜의 개발도상국 아동 후원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HSBC은행 여성위원회

HSBC 은행 여성위원회가 개발도상국 여자들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장학금을 통해 소외된 태국 소수민족 여학생 세 명이 1년간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HSBC은행 여성위원회는 은행 내 나눔 장터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고, 별도의 모금 활동을 벌여 라오스 유치원 건립기금을 8천 5백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이상네트웍스

2011년, 국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이상네트웍스는 아동과의 직접적인 결연을 통해 좀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자 임직원 80명 전원이 베트남 지역 아동과 아동결연후원을 시작했다.

(주)엔비아이제트

(주)엔비아이제트는 "단순한 결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는 뜻을 비추며 전 직원 31명이 지구촌 아동45명과 결연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임직원봉사단은 여름 휴가 대신 인도 델리의 빈민촌에서 봉사활동과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장애 아동센터를 방문한 봉사단은 티셔츠 페인팅, 실험도구 만들기 등과 같은 학습교구를 함께 만들어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했으며, 지역 내 초등학교를 찾아 센터 건물 내외벽 페인트 칠과 같은 환경미화과 개보수 작업을 통해 좀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니올림픽과 태권도 공연과 같은 다양한 공연을 준비해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인도빈민가에 위치한 공립학교 학생들의 IT교육을 지원했다. 낙후된 교육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빈민가의 공립학교에 2개의 ICT센터를 건립하고 센터 내 장비와 기자재는 물론 과학실 내 가구 및 도서 물품도 지원했다. 인도 현지에서 진행된 기공식에는 임직원 30여명이 방문해 기공식을 축하하며, 운동회 개최, 모형배 만들기, 벽화 그리기, 학용품 전달 등 현지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SK Planet

SK Planet는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해 아프리카, 동남아 등 해외 빈곤국가 아동과 임직원의 1:1 결연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해피 스마일 매칭' 프로그램을 런칭 했다. SK Planet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OK캐쉬백 포인트와 참가자 개인의 후원금을 더하는 매칭 펀드 형태로 조성되는 이번 후원금은 결연을 맺은 해외 아동에게 매월 전달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플랜코리아와 인도네시아 렘방 지역 내 Dream Tomorrow 초등학교 건립 및 위생시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30년 된 학교를 철거하고 학교 건물 신축과 위생시설과 교구 지원, 교사 훈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사적으로 사내 홍보 및 이벤트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인 해양동물 매너티가 위촉 3주년을 맞이했다. 매너티는 2009년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관람객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자신의 고향인 아프리카 기니에 사는 2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너티는 현재까지 총 10명의 아프리카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매너티는 플랜코리아를 통해 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영양식을 공급받으며, 아플 때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한다. 앞으로도 매너티는 플랜코리아를 통해 아프리카 아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도이치 뱅크

도이치 뱅크에서 인도 장애아동 사업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플랜코리아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Global Business Services 부서를 주축으로 한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청계천 걷기대회를 통해 모금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삼성전자·삼성서울병원

삼성전자 임직원과 삼성병원 의료봉사단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은공사내 학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교실 바닥 타일작업, 컴퓨터실 지원, 망고나무 식수, 축구공대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동행한 삼성서울병원 의료봉사단은 3일간 1,20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 및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서영엔지니어링

2011년 완공된 캄보디아 서영드림스쿨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서영드림스쿨은 서영엔지니어링의 지원으로 건립된 중학교로 지난 2011년 개교했다. 봉사단은 이번 방문에서 아외학습장 4개동 신축, 학교 로고 제작, 한국음식 만들기, 미니올림픽, K-POP경연대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다.



플랜코리아와 함께한 사람들

2012년 한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플랜코리아와 함께했습니다. 플랜코리아의 활동을 지지하고, 더불어 어린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태국 소수민족 아이들에게 생일을 선물한 배우 조안

태국 치앙다오 소수민족 아이들을 방문한 조안은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의 부모를 설득해 직접 출생등록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존재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출생등록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 만들기, 유치원 환경개선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조안과 함께한 아이들은 출생등록을 통해 생일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지지에 동참한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

LPGA 한국여자골프 100승, 최고 권위의 US 여자 오픈 골프에서 우승해 명실상부한 골프의 여제가 된 최나연 선수가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에 동참했습니다. 6년 전부터 플랜코리아를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두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최나연 선수의 후원아동은 최나연 선수의 우승을 축하하는 편지를 전달해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나연 선수 역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플랜코리아의 첫 번째 플래니스타, 오상진 아나운서

플랜코리아의 아동결연 캠페인, 스타결연리레이를 통해 플랜코리아와 인연을 맺은 오상진 아나운서가 플랜코리아 첫 번째 플래니스타로 위촉되었습니다. 플래니스타는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플랜코리아의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해 플랜코리아를 홍보하는 스타 후원자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오상진 아나운서의 플래니스타 위촉식은 플래니스타와 후원자와의 만남, 'The 좋은 사람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The 좋은 사람들"에서는 30여 명의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 오상진 아나운서의 플래니스타 위촉을 축하했습니다.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 준 배우 전미선

배우 전미선은 인도네시아 랭방지역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위생용품을 나눠주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언어장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등록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플랜코리아와 인연을 맺은 전미선은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지구촌 어린이들의 상황을 더욱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섰습니다. 또한 자신의 출연작인 연극 '친정엄마와 함께한 2박 3일'의 객석 나눔을 통해 플랜코리아 후원자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해 주었습니다.

아동노동의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배우 백진희

배우 백진희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태국 치앙마이 평지역을 방문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노동의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여자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학업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진 백진희는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기념해 플랜코리아가 개최한 '지구촌 어린이에게 희망을, Love 콘서트'에 참석해 태국에서 느낀 안타까움을 전하며 관객들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희망을 발견하고, 더 큰 희망을 나누어 준 배우 이수경

자신의 후원 아동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에 방문한 배우 이수경은 어려운 처지에도 꿈을 잃지 않고 밝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학교가 멀어 학교에 가는 대신 쓰레기장에 일하러 가는 아이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고, 고아원에서 자라 생일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생일파티를 열어주어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첫 봉사활동 이후 바로 필리핀에 다시 방문한 이수경은 플랜의 지원을 통해 더 나아진 삶을 살게 된 아이들을 만나 우리의 나눔이 어떤 희망이 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지구촌 어린이에게 희망을, Love 콘서트'의 MC로 참석해 지구촌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과, 아이들이 가진 꿈에 대해 나누며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전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배우 김성령, 손현주, 수애

플랜코리아와 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배우 김성령, 손현주, 수애가 플랜코리아와 함께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 마음씨를 다시 한 번 나눠주었습니다. 2002년 베트남을 방문해 직접 후원 아동을 만나고 돌아온 배우 김성령은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플랜코리아와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던 배우 손현주는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했고, 방글라데시에 방문했던 수애도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전해진 배우들의 따뜻한 나눔의 마음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리지만 나눔의 마음만은 커다란 고등학생들

2012년 한 해는 플랜코리아와 함께하는 고등학생들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성남고등학교, 건국고등학교 학생들은 개발도상국에 우물을 선물해 주었고,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내 바자회를 통해 모은 금액으로 개발도상국 학교에 식수대를 선물해, 학교에서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어동화를 만들고, 모금활동을 통해 책으로 출판까지 한 용산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플랜코리아에 자신들의 재능으로 만들어진 책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전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며 책을 기증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봉사동아리인 '더체인지'는 2012년 한 해 걷기대회, Because I am a Girl 패션쇼, 세계 여자아이의 날 제정 기념 국회의원포토세션 진행 등의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을 통해 플랜코리아와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 플랜티어 & 플랜클럽

플랜코리아 자원봉사자 플랜티어와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의 활동은 플랜코리아를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큰 힘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나눔의 손길을 전해주시는 플랜티어 여러분 덕분에 2012년 한 해도 수 많은 서신과 문서가 제자리를 찾았고, 나눔으로 청춘을 플랜하며 청춘의 패기를 전한 플랜클럽 덕분에 활력을 얻었습니다. 플랜코리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조용히 도와주신 217명의 플랜티어와 플랜클럽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13년 한해도 여러분의 든든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 후원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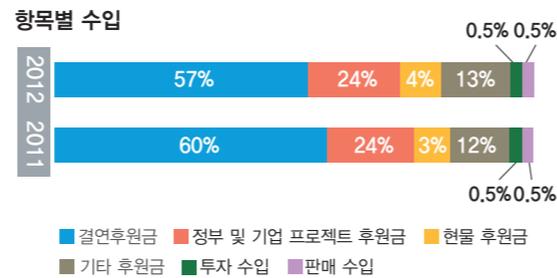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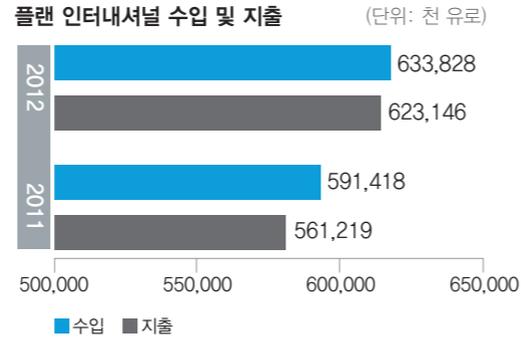
플랜코리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입니다. 2012년, 플랜코리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어린이의 숫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넘어 끊임없이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플랜코리아의 가장 큰 힘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후원아동의 사진을 보며 잊지 않고 후원을 지속해오신 분, 수입의 3분의 1을 후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후원아동을 늘리겠다는 분, 어린 나이지만 배운 대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아동결연을 해준 어린 후원자 분까지, 참 많은 후원자 분들이 플랜코리아와 함께해 주셔서 더욱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플랜 인터내셔널 월드와이드 연결 수입 및 지출 보고

(2012. 6. 30 기준) 단위: 천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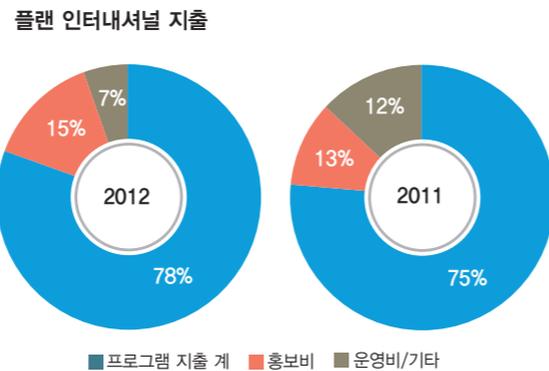
		2012	2011
수입	결연후원금	362,996	353,368
	정부 및 기업 프로젝트 후원금	153,219	139,657
	현물 후원금	27,088	14,615
	기타 후원금	84,553	77,366
	수입 계	633,828	591,418
지출	프로그램 지출비	487,545	417,665
	홍보비	90,927	73,707
	운영비/기타	44,674	69,847
	지출 계	623,146	561,219
차기이월	10,682	30,199	



플랜 인터내셔널 월드와이드 지출 명세

(2012. 6. 30 기준) 단위: 천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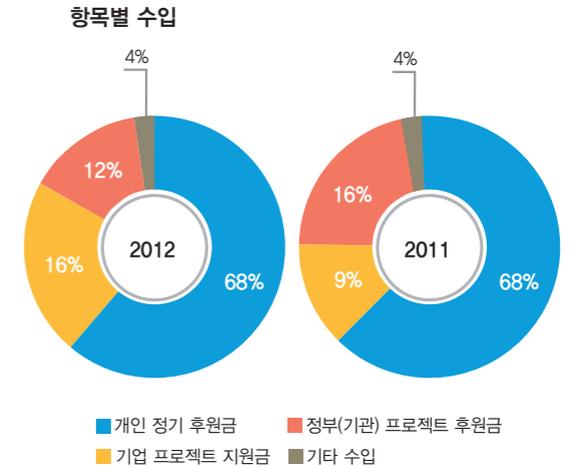
		2012	2011
프로그램 지출비	지역개발사업 지원	276,456	247,419
	아동권리교육/보호	99,198	72,762
	스폰서십 프로그램 지원	52,245	51,696
	재난위기관리 및 긴급구호	59,646	45,788
	프로그램 지출 계	487,545	417,665
홍보비	90,927	73,707	
운영비/기타	44,674	69,847	
지출계	623,146	561,219	



2012년 회계연도 수입결산서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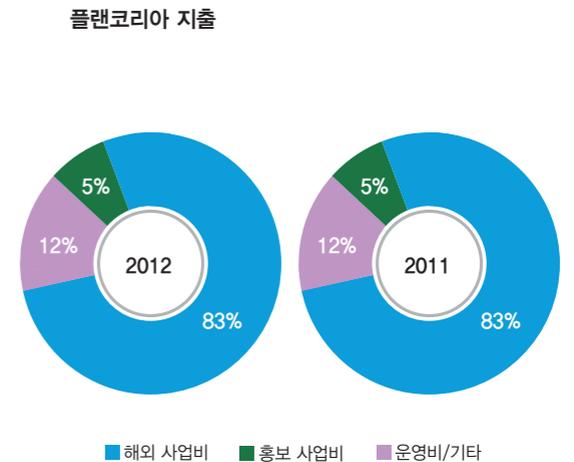
항 목	2012	2011
개인 정기 후원금	7,849,857	6,379,486
정부(기관) 프로젝트 지원금	1,337,566	1,451,600
기업 프로젝트 지원금	1,886,798	768,892
기타 수입	496,545	387,314
합계	11,570,766	8,987,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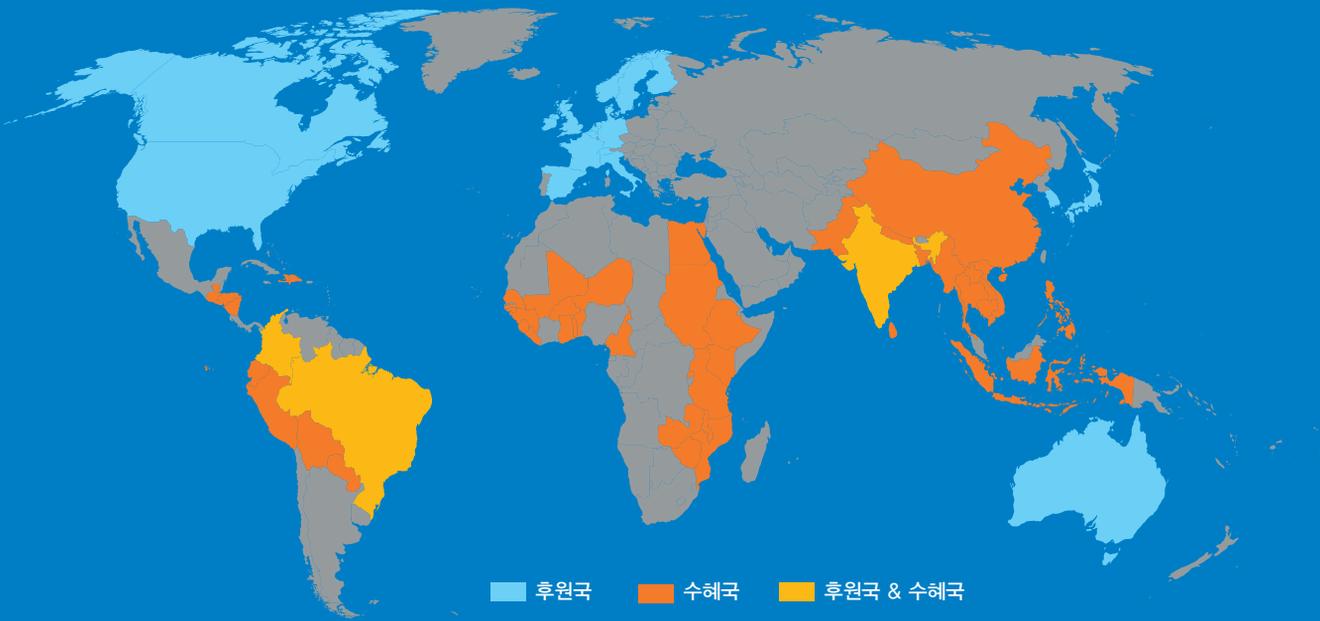


2012년 회계연도 지출결산서

단위: 천 원

항 목	2012	2011	
내외 사업비	운영비/기타	1,402,421	1,112,306
	홍보 사업비	621,108	480,727
	소계	2,023,529	1,593,033
해외 사업비	개발 교육비	210,868	143,247
	프로그램 지원비	144,596	139,234
	Advocacy	76,292	68,686
프로그램 지출비	9,115,481	7,043,092	
소계	9,547,237	1,394,256	
합계	11,570,766	8,987,292	





후원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대한민국 이탈리아
 덴마크 인도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벨기에 콜롬비아
 브라질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호주
 스페인 홍콩

수혜국

가나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인도 태국
 과테말라 르완다 세네갈 인도네시아 토고
 기니 말라위 수단 이집트 파라과이
 기니비사우 말리 스리랑카 잠비아 파키스탄
 남수단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중국 페루
 네팔 미얀마 아이티 짐바브웨 필리핀
 니제르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카메룬
 니카라과 베냉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엘살바도르 케냐
 동티모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간다 탄자니아



135-87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4 청우빌딩 2층
 2nd Floor, Cheongwoo BD, 58-4, Samsung-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 +82.2.790.5436 **Fax.** +82.2.790.5416 **webpage.** www.plankorea.or.kr
t @plankorea **f** www.facebook.com/plan.kr